

WTO/OECD하에서 공적수출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단기 및 중장기 수출자금 대출지원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Korean Short-term Export Loan System &
Medium and Long-term Export Loan System upon Korean Export in WTO/OECD

이은재(Eun-Jae Lee)

단국대학교 무역학전공 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WTO/OECD규범과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 | 참고문헌 |
| III. 수은의 단기·중장기수출자금 대출지원 제도의
현황 및 실증분석 | Abstract |

Abstract

In this study, I analysed the influence of the Korea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System upon Improvement upon Korean Export, investigated Korea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System focussing on the Short-term Export Loan System & Medium and Long-term Export Loan System in Korea Eximbank and sought for the measures overcoming problems therewith.

In my research I started from a basic model analyzing Short-term Export Loan & Medium and Long-term Export Loan using added several variables that have effect on export such export relative price, world income and the amount of post-shipment credit bank guarantee.

As a result, amount of Short-term Export Loan & Medium and Long-term Export Loan, world income and export relative price showed expected responses and Short-term Export Loan was significant.

In case of amount of Short-term Export Loan System was statistical significance.

Key Words : Short-term Export Loan, Medium and Long-term Export Loan, relative price, world income

I. 서론

1994년 WTO체제의 출범은 국내산업의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WTO보조금 협정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온 금융, 조세 등의 각종보조금을 국제 규범에 맞게 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여건 악화를 상쇄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폭은 더욱더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WTO규범 내용에 부합되도록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검토는 수출지원제도자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WTO보조금/상계조치협정 및 OECD가이드 라인 하에서 공적수출 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종목 중 대출종목을 2년미만의 단기와 2년이상의 중장기로 나누어 단기 수출자금대출제도와 중장기수출자금대출제도의 양 측면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전자는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으로 단기적인 수출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중장기수출자금대출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수출지원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II장은 WTO/OECD 규범과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제III장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1985 - 2003년에 이르는 연도별 시계열자료(time-series)를 이용하여 각 변수들에 대하여 자연대수를 취한 후 일반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 OLS)을 분석방법으로 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종목 중 단기 및 중장기 수출자금대출지원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하고 제IV절은 결론으로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종합적인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I. WTO/OECD규범과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

1.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타결된 WTO보조금/상계조치협정은 보조금의 허용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화하였다. 동협정에서는 보조금의 정의를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있거나 가격 및 소득지지형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수혜자가 받는 혜택'이라고 규정한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조치가 보조금의 정의를 만족한다고 하여 교역상대국이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특정성'은 정부가 특정조치의 수혜범위를 특정기업이나 특정산업에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적 제한성과 사후적으로 동조치를 공평하게 이용하였는가 하는 실질적 이용가능성의 문제로 요약된다.

동 협정에서 보조금의 종류는 무역왜곡효과와 특정성을 기준으로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구분된다. 금지보조금은 수출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수출보조금 또는 수입 물품 대신 국내 물품 사용에 대해 제공되는 수입대체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상계가능보조금은 모든 회원국이 일단 사용할 수는 있으나 ‘특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타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이다. 이 때 ‘심각한 피해’ 여부의 입증책임은 피제소국에 있다. 허용보조금은 비차별적 지원방식을 택함으로써 무역왜곡효과가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더라도 일정한 제약과 일정수준 내에서 지급되는 연구개발 보조금, 낙후지역개발보조금, 환경설비보조금으로 구성된다.

WTO는 본 협정의 발효이후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 회원국이 사용중인 금지보조금을 철폐 또는 협정과 부합되는 형태로 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단 수출 보조금의 경우 개도국 우대 조치를 인정하여 연소득이 \$1000 미만인 최빈국은 수출보조금의 금지적용을 배제하고, 기타 개도국은 8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였다.

2. OECD의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¹⁾

OECD의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은 공적 수출신용과 무역연계 원조에 관한 지원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며, 상업적 금융조달이 가능한 거래에 대한 공적 지원을 금지할 목적으로 1978년 4월 제정되었으며, 통상「OECD 컨센서스(Consensus)」라 불린다. 협약은 현재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23개국 (EU,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으로 구성되어 있다.²⁾

협약은 결제기간이 2년 이상인 재화와 용역의 수출 및 금융리스에 대한 모든 형태의 공적지원과 무역연계 원조(타이드 원조)형태의 공적지원에 적용된다. 공적지원의 형태는 직접대출 및 신용, 리파이낸싱, 이차보전 등을 포함하는 공적 금융지원과 수출신용보험·보증을 의미하는 순수담보(pure cover) 그리고 원조금융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동 협약은 군사장비 및 농산물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선박, 핵발전플랜트 및 민간항공기 부문에 대해서는 부문별 양해 또는 협정이 적용된다.

협약은 공적 수출신용지원과 관련된 선수금, 최장 상황기간, 원리금 상환 방법, 최저이자율(CIRR), 최저보험요율(minimum premium benchmarks), 현지비율 등의 신용조건에 대한 제한 사항과 타이드 원조의 조건 및 일반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주요 개정 내용

협약은 1987년 Wallen 패키지, 1991년 Helsinki 패키지, 1994년 Schaerer 패키지, 1997년 Knaepen 패키지

1) 김태준, “선진국 수출보험제도의 운영실태와 정책시사점”, 「수출보험학회지」, 한국수출보험학회, 2000, pp.203 ~ 209.

2) 한국은 1997년에 OECD Consensus의 참여국(Participant)이 되었다.

지 등으로 보완, 개정되어 왔으며, 1997년에는 각각 분리되어 논의되어 왔던 선박, 핵발전 플랜트, 민간항공기에 대한 부문별 양해를 통합하였다.

(1) Wallen Package (1987년)

본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Category I (비교적 부유국가) 대상 수출에 대한 보조금적 성격의 행렬이자율 (matrix interest rates)의 철폐이다. 이러한 조치는 1994년 채택된 공적수출금융의 최저이자율 규정을 위한 첫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역연계 원조의 무상원조 비율(concessional level)의 산정시 시장상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일률적인 10%에서 차별화된 할인율(differentiated discount rates)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최저 무상원조 비율을 25%에서 35%로 상향조정하였다.

(2) Helsinki Package (1991년)

상업적으로 금융조달이 가능한 프로젝트와 부유개도국에 대한 타이드 또는 부분적 타이드 원조의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하였다. 상업적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유형의 검증방식이 도입되었다.

(3) Schaerer Package (1994년)

공적수출금융의 지원금리를 상업참조금리(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s : CIR)로 규정함으로써 수출금융분야에서도 보조금 성격의 이차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³⁾

또한 최장 상환기간 관련 국가 구분을 재규정하고 국가구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였다. 또한 타이드원조의 무상원조 비율을 산정하는 할인율인 차별화된 할인율(DDR)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4) Knaepen Package (1997년)

90년대 들어 각국이 수출보험을 자국의 중장기 수출거래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함에 따라 각국 수출보험기관의 경쟁적 효율인하로 인한 과당경쟁이 촉발되었고, 각 기관간의 효율격차도 심화됨에 따라 세계무역 질서가 왜곡되었다. 그리고 각국 수출보험의 손해를 급증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OECD는 1994년부터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 참가국 그룹(GOP)」 주도하에 중장기 수출보험요율 통일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GOP는 1997년 6월 수출보험요율 통일안(Knaepen Package)을 마련하였고 1997년 11월에 OECD 가이드라인 협약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GOP 참가국들은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1999년 4월부터 통일안을 반영한 새로운 수출보험요율체계를 시행하게 되었다.⁴⁾

3) CIR은 해당 대출통화의 국제수익율에 100bp를 가산한 시장금리이며 월별로 조정된다.

통일안은 수입자/차국의 민간 또는 공공기관여부에 관계없이 상환기간 2년 이상의 중장기 거래(농산물 및 군수품 제외) 관련 정부신용위험(sovereign credit risk)과 국가신용위험(country credit risk)에 대한 최저기준 보험요율(minimum premium benchmarks)을 설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신용위험의 7개 국가별 등급으로 분류

특정국가의 대외채무상환 가능성을 그 국가의 재정상황, 경제상황, 지급경험 등과 같은 양적 지표를 기초로 하는 계량모델과 정치상황과 기타 경제적, 재정적 요소 등의 질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대상국을 7개의 위험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때 고려되는 국가신용 위험요소는 특정국가에 의해서 공표된 일반적 모라토리엄, 송금의 지연 또는 방해 조치, 환율변동에 따른 상환액 미달에 대한 특정국가의 비경제적 조치, 천재지변, 전쟁, 수용, 혁명 등이 있다.

나) 최저기준 보험요율의 결정

최저기준 보험요율은 국별 등급과 상환기간을 기초로 해서 결정되는데 신용의 원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선납(up-front)요율로 표시된다. 또한 최저기준 보험요율은 제도상의 차이점 즉 부보율을 포함한 질적 조건(related conditions)을 고려해서 조정된다.⁵⁾

최저기준 보험요율은 부보율이 95%인 표준제도에 대한 최저기준 보험요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저기준 보험요율은 정기적으로 세가지 보험요율 적정성 측정방법에 의해서 재검토된다. 한편 대형항공기와 선박거래에 대해서는 통일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국 무조건부 보증, 다국적 또는 지역적 기관의 개입, 역외의 지급신탁계정(Escrow Account)과 결합된 미래현금흐름⁶⁾, 역외 자산근거부 담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융자, 현지화 금융 등의 경우에도 최저기준보험요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고소득 OECD 국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도를 갖는 여타 국가들에 대해서는 민간시장의 가격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최저기준 보험요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

우리나라는 WTO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 따라 1996년 4월 당시 운용이던 26건의 보조금 내역을 WTO 사무국에 통보하였다. 보조금 내역은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 수출입에 관련된 금지 보조금 5건과 양곡관리사업 및 축산업지원사업 등 특정산업관련 상계가능 보조금

4) 한국의 경우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과 함께 통일안을 2002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되었다. 1999년 4월까지는 최저기준 보험요율의 40%, 2000년 4월 60%, 2001년 4월 80%, 2002년 4월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5) 질적 조건은 표준제도, 표준미달제도, 표준초과제도 3가지로 분류되는데 표준미달제도의 경우는 할인율이, 표준초과제도의 경우에는 할증율이 적용된다.

6) 역외의 지급신탁계정이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봉인되어 교부된 증서, 양도 증서 또는 신탁약정 등을 의미하며, 동 제3자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보관하였다 실행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17건 그리고 4건의 연구 보조금으로 구성되었다. 금지보조금으로 통보한 5개의 수출관련 보조금은 1998년 말 이미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는 수출금융관련 4가지제도(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자금 대출, 수출보험제도, 수출금융제도)와 수출용원자재관세환급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표 2-1>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지원관련 제도의 종류, 목적 및 국제규범과의 합치성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 수출지원제도

명 칭	목적 및 대상	지원내용	비고
무역금융	수출물품의국제경쟁력제고를 통한 수출 촉진 및 국산원자재사용 유도를 통한 외 화가득률 제고	수출/외화획득용 건설공사 및 용역공급에 사용되는 자금대출 및 보증 용자기간 : 소요기관(신용장 기준 180일 이내, 실적 기준 90일 이내)	보조금 여부 마찰소지-자금 가용성면에서 혜택
수출산업설비자금대출제도	수출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기술부족으로 수입중인 소재부품의 국내개발과 수입대체 도모	공장건물 신/증설, 국산기계설비구입 및 설치, 기술개발시설, 기술도입자금제공	
수출보험제도	대외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촉진도모	각 종목별로 지원내용상이함	보조금여부마찰소지-10억 이상용자기업은 생산개시 2년 동안용자의 50%수출의무
수은의금융지원제도	고유업무는 크게 대출과 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출은 지원 금융종류에 따라 2년미만 단기와 2년 이상 중장기로 나누어 수출자금대출, 수입자금대출과 해외투자자금대출 등으로 세분할 수 있음.	각 종목별로 지원내용상이함	보조금 해당 없음
수출용원자재관세환급	수출용원자재 수입 시 부과 관세의 환급을 통하여 능률적 수출지원교역 증대 도모	수입한 수출원자재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용될 경우 관세(관세, 부가가치세, 특소세, 국세 등) 환급	보조금 해당 없음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ATT/WTO체제50주년 기념정책세미나; 수출지원방안」, pp15, 1998.

Ⅲ. 수은의 단기·중장기수출자금 대출지원제도의 현황 및 실증분석

우리나라는 1960년대의 수출진흥책,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책, 1980년대의 첨단산업 육성책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자본재 산업 육성책과 같이 수출진흥 및 산업의 단계적 고도화를 위하여 지원책을 실시하여왔다. 그러나WTO체제하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특정산업군 육성과 함께 그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보조금 지급이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탄력적인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출지원전략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WTO관련규범과의 저촉성여부를 비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WTO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중목 중 2년미만인 단기수출대출자금지원제도와 2년이상인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는 단기간에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점검해보고, 다음 상대적으로 소홀한 중장기적 수출지원제도 중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장기수출자금대출제도를 중심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의 유효성여부를 검증한다.

따라서 WTO체제하에서는 수출인프라정비를 통해 앞으로 금융지원제도의 지원방향을 살펴본다.

1.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 및 주요금융업무

1)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개요

수출입은행은 수출산업구조를 중화학공업위주로 원활하게 전환하고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 전담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즉, 1969년 7월 ‘한국수출입은행법’이, 동년 10월에는 동시행령이 각각 제정됨으로써 법적 기반이 형성되었고, 초기에는 수출금융전담기관의 설립을 일단 연기하고 잠정적으로 한국외환은행이 1억원의 재정자금으로 1969년 10월부터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현금출자 200억원, 한국외환은행의 대출금출자전환 300억원과 정부출자 54억원 등 총 554억원을 설립자본금으로 1976년 7월 발족하였다.

90년대 후반부터 자본금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심각한 신용경색현상을 완화하는 데에 수출입은행을 활용하기 위해 1998년 정부출자가 급증하였고 1999년에는 한국은행의 외환은행 출자지원이 수출입은행을 경유하여 이루어진 데에 기인했다.

2) 주요금융업무

수출입은행의 일반업무는 고유업무인 금융업무와 정부위탁업무인 대외협력기금 및 남북협력기금 업

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기타업무로 수출기업과 해외투자 희망자에게 개도국의 경제환경과 수출 및 투자와 관련한 인허가 사항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금융업무는 고유업무인 금융지원업무로서 OECD공적수출신용지원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CIRR(Commercial Interest Rates)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크게 대출과 보증으로 구분하고 기간별로 2년 미만은 단기 및 2년 이상은 중장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출은 지원 금융종류에 따라 수출자금대출, 수입자금대출과 해외투자 자금대출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표3-1〉 한국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증목

기간	제도	주요특징
중장기 (해외투자자금 대출포함)	연불금융(공급자신용)	-국내 수출자가 직접 차주(중장기수출보험) -OECD가이드라인 적용
	직접대출(구매자신용)	-외국 수입자가 직접 차주(지급보증서) -OECD가이드라인 적용
	Project Finance	-대규모 기간통신사업 등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과 현금흐름이 담보
	전대자금대출	-외국 전대은행이 직접 차주 -중남미, 동남아, 동구권 등 개도국 수출
단기 (해외투자자금 대출포함)	단기수출자금	-일람불 및 2년 이내 연불수출거래 -통합회전한도 설정
	중소규모자본채 수출자금	-제작 및 결제기간을 합하여 6개월 미만 -통합회전한도 설정
	수출환어음매입 및 추심	-30일~2년 만기 수출환어음(중소기업) -소구(With recourse)조건
	포페이팅	-30일~20년 만기 적격 수출환어음 -무소구(With recourse)조건
	포괄수출금융	-과거 수출실적의 100%까지 포괄금융 -통화전환 및 환율상한 옵션
	L/C 거래특례선용대출	-6월미만, 기준금리+가산율
보증	중장기	이자율지지+채무보증
	단기	이행성보증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등

자료 : <http://www.koreaexim.go.kr> 제작성

3) 대출업무

대출업무는 지원자금의 성격에 따라 수출자금, 전대자금, 기술제공자금, 중소기업자본재수출자금, 해외투자자금 등 여러 종류로 세분되어 있으나 수출자금, 해외투자자금과 수입자금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내 상업금융기관의 단기무역신용 위축으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무역어음채할인을 통해 단기 신용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 등 해외공적기관들의 재원을 이용하여 수출용원자재 등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수입금융 지원업무도 취급한 바가 있다.

수출자금은 수출은행 업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산업설비, 선박, 기계류 등 자본재의 중장기 연불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내수출기업 또는 외국 수입업체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다.

동 자금은 공역시점에 따라 제작금융(수출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과 연불금융(수출목적물 인도 이후 수출대금의 회수완료시점까지의 자금지원)으로 구분된다.

해외투자자금은 우리 기업이 외국법인에 출자하기위해 필요한 자금, 우리기업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에 외국인이 출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기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자금 등이 포함된다.

수입자금은 장기간의 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수입을 요하는 주요자원 및 중요물자의 수입자금 또는 그 수입자금 또는 그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대금이 선불지금을 의미한다.

〈표3-2〉 수은의 단기 및 중장기 수출입자금대출지원금액 (단위 : 억원)

연 도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중장기 자금	수 출	1,822	653	570	3,807	1,264	725	8,452	3,159	4,717	19,758
	수 입				1,152	1,385	786	337	207	533	2,959
	해 투	36	52	929	1,000	776	4,298	6,519	53	1,529	5,624
중장기 합계		1,858	705	1,499	5,959	3,426	5,809	15,308	3,420	6,780	28,340
단기 자금	수 출	6,696	4,261	3,517	6,069	19,494	34,559	57,944	74,146	65,884	6,604
	수 입			775	826	528	1,412	2,168	145	704	2,588
	해 투	51		15							64,555
단기 합계		6,747	4,261	4,307	6,895	20,022	35,972	60,112	74,290	66,588	92,895
총 합계		8,605	4,966	5,807	12,854	23,447	41,780	75,421	77,710	73,367	121,235

참고 : 2003년부터 역외자금은 단기에서 중장기로 분류하여 표작성함.

자료 : [http : //www.koreaexim.go.kr](http://www.koreaexim.go.kr) 제작성

대출은 9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하여 1999년에는 7조 7,266억원(2000년 추정치 8조 956억원)에 달했다. 자금별 지원실적을 보면 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수출자금이 지원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본재수출관련 중장기금융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외환위기중에는 단기무역신용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표 3-3> 총수출 대비 수은의 지원비중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총수출(A)		76,632	96,013	129,715	132,313	172,268	150,439	162,471
실 적	수은지원(B)	1,965	4,155	6,451	11,029	10,331	9,991	12,654
	비중(B/A)	2.6	4.3	5.0	8.3	6.0	6.6	7.8
자본재수출(C)		23,770	34,970	50,090	51,223	74,778	60,074	67,656
실 적	수은지원(B)	1,965	4,155	6,451	11,029	10,331	9,991	12,654
	비중(B/C)	8.3	11.9	12.9	21.5	13.8	16.6	18.7

자료 : <http://www.koreaexim.go.kr> 제작성

해외투자자금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본격화된 198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90년에는 전체 지원자금의 19.2%에 달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주요 해외투자대상국가인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경제불안으로 인한 해외투자의 둔화로 자금지원이 크게 축소되었다.

<표3-4> 해외투자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지원액	1,400	4,298	427	1,529	3,985

자료 : <http://www.koreaexim.go.kr> 제작성

수입자금은 광물자원고 발전연료 등의 안정적인 확보와 비상시를 대비한 수입이 이루어지면서 90년부터 많은 자금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는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수입이 억제된 데다 한국은행, 세계은행(IBRD), 일본수출입은행(JEXIM), 등의 특별수입 자금이 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수요의 상당부분을 대체함에 따라 크게 수축되었다.

이러한 특별수입자금은 1999년말 상환되거나 운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0년부터는 수입자금 지원실적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이 1976년 수은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1999년에는 2조 5,419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유럽에 대한 수출지원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에는 21.4%에 달한다.

2) 보증업무

보증업무는 채무보증과 수출거래 또는 해외건설공사관련 보증으로 구분되며, 채무보증은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자금을 대출해준 국내외 금융기관 앞으로 수출입은행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보증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들 보증은 수출자금, 해외투자자금 및 수입자금 등 수출입은행의 대출지원대상 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수출거래 또는 해외건설공사관련 보증은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계약 및 해외건설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및 유보금보증 등의 이행성보증을 의미한다.

보증실적은 주로 이행성 보증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났는데 특히 2000년 들어 크게 증가하여 1~10월중 5조 9,149억원을 기록(승인기준)하면서 '99년 2조 4,468억원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다.

보증 종류별로 살펴보면, 선수금환급보증이 5조 9,149억원으로 전년대비 230% 증가한데 반해, 계약이행보증은 2,42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대출금상환 보증서비스는 1999년중 1건에 그치는 등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여 왔다.

1999년까지의 부진은 구매자신용 채무보증업무의 법제화가 미비된데다 국내 상업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수준이나 자금의 장기운용면에서의 제약으로 인하여 중장기 연불수출자금 대출을 기피함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보증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낮았던 데에 기인한다.

향후 국내상업은행의 장기자금 공급능력 및 금리경쟁력이 향상되어 연불수출자금 공급의향이 높아지면 보증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중소기업지원 업무

외환위기 이후 상업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인해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량 중견·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금융우대조건을 제고하고 신설·운용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지급보증서 제공시 금리1%차감)를 적용하고 대출한도도 해외투자자금은 80%(대기업70%), 수입자금은 90%(대기업 80%)로 높여주고 있다.

또한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WTO협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저대출금리를 적

용하도록 노력함.

수출자금 우대지원대상은 금융기관 여신규모 상위 30위 이내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사업전망이 양호한 기업이다.

90년대 대기업위주의 수출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결과 총대출금중 중소기업대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중 25.9%에 달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에 힘입어 중소기업대출비중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3-5〉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비중 (단위 : 억원, %)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중소기업지원액(A)	1,017	4,192	22,619	13,370	14,087
여신총액(B)	7,305	40,493	80,956	73,168	83,754
중소기업지원비중(A/B)	13.9	10.4	27.9	18.3	16.8

자료 : <http://www.koreaexim.go.kr> 제작성

2. 단기 및 중장기 수출자금대출지원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1) 분석모형의 설정 및 방법

공적수출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보험공사로 대변될 수 있다. 위 두 공적수출기관과 관련된 연구는 수출보험관련 실증적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수출입은행관련 실증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수출보험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수출보험이 수출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수출결정요인에 관한 계량경제모형을 설정하여 수출보험의 수출기여도를 분석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출보험의 증가가 수출수요의 확대를 통해 생산부가가치·고용 등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계측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수출의 수출탄력성에 관한 연구로 박진근(1989)⁷⁾, 김희국(1996)⁸⁾, 이은재(2000)⁹⁾, 이시영·양지

7) 박진근, "한국수출보험제도의 중장기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수출보험, 한국수출보험공사 제3호, 1989.

8) 김희국, "수출보험의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 「수출보험」, 한국수출보험공사, 1996.5, pp.2~13.

9) 이은재,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출어음보험 및 중장기수출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제13권 제4호(통권 25호). 2000.2.28., pp.169~pp.191.

환·전성희(2001)¹⁰⁾, 이은재(2001)¹¹⁾, 이은재(2003)¹²⁾, 이은재(2003) 이은재(2003)¹³⁾, 이은재(2004)¹⁴⁾등이 있으며, 후자는 수출보험의 경제적효과에 관한 연구로 문원기(1994)¹⁵⁾, 한국수출보험공사(1996)¹⁶⁾, 김희국(1996)¹⁷⁾, 김희국·이윤(2001)¹⁸⁾ 등이 있다.

또한 외국 문헌으로 Glosong(1982)¹⁹⁾과 West(1982)²⁰⁾ Glosong(1982)²¹⁾과 West(1982)²²⁾는 특히 비상위험에 대한 관리책으로서 상호투자보험기관(Multilateral Investment Insurance Agency : MIIA)의 설립 및 미국수출입은행(U.S EXIMBANK)의 역할도 기업의 해외투자시 몰수(expropriation), 태환불능(inconvertibility), 전쟁 등의 비상위험(non-commercial risk)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정유회사의 예를 들어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보험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Huszagh and Greene(1982)²³⁾의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몇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즉, 그들은 수출품목, 수출경험, 매출액 수출액에 대한 총생산액의 비율 등이 수출보험에 대한 수출업자의 태도와 관련있는가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수출액과 총매출액의 비율은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의 수출업체들이 수출신용보험제도에 대해 무지하고 또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수출보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²⁴⁾ 또한 Huszagh and Greene(1985)²⁵⁾은 연구를 확대하여 수출신용사고경험과 동 보험제도에 대한 태도를 관찰하였다. 수출보험 가입자들이 비가입자에 비하여 사고경험이 많고 또 수출보험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Funatsu(1986)²⁶⁾의 연구는 수출보험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요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
- 10) 이시영, 양지환, 전성희, “한국수출보험제도의 역할과 국가위험도”, 『무역학회지』, 제26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1
 - 11) 이은재, “「한국수출보험공사 설립이후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2년 III분기 - 1999년 III분기-」, 『생산성논집』 제15권 제1호, 2001.
 - 12) 이은재, “우리나라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제도가 수출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2003
 - 13) 이은재,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선적전-후수출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제17권 제2호, 2003.
 - 14) 이은재, “수출보험기금제도가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생산성논집』, 제18권 제1호, 2004.
 - 15) 문원기, “수출보험의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 『수출보험』, 한국수출보험공사, 1998.
 - 16)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의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 1996.
 - 17) 김희국,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 『수출보험』, 수출보험공사, 1998.
 - 18) 김희국, 이윤, “수출신용과 환경관련 OECD가이드라인의 제정 동향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보험학회지』, 제2권 제1호, 한국수출보험공사.
 - 19) Golsong, Herbert, International investment insurance against political risk, 1982.
 - 20) West, Gerald T., "U.S. Government investment insurance programs : New developments, Insuring American Business against political risks abroad, Conference on political risk investment insurance, New York. 1982.
 - 21) Golsong, Herbert, International investment insurance against political risk, 1982.
 - 22) West, Gerald T., "U.S. Government investment insurance programs : New developments, Insuring American Business against political risks abroad, Conference on political risk investment insurance, New York. 1982.
 - 23) Huszagh, Sandra M. and Mark R. Greene, FCIA : Help or Hindrance it Export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49. pp.256 ~ 68.
 - 24) 불만의 내용에는 보수적(제한적, 관료적, 융통성없는) 운영방식, 서비스의 지체등이 포함된다.
 - 25) Huszagh, Sandra M. and Mark R. Greene, How Exporters view credit risk and FCIA Insurance - the Georgia Experie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52. pp.117-32
 - 26) Funatsu, Hideki, Export Credit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3. pp.679-91

모형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Eeckhoudt and Louberge(1986)²⁷⁾는 Funatsu의 연구를 발전시켜, 수출을 보험이 없는 수출(export without insurance), 비례보험에 의한 수출(insurance with proportional reimbursement), 비비례보험(insurance with non-proportional reimbursement)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업이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들을 비비례보험의 경우에는 Funatsu의 연구에서와 같이 보험요율의 조정을 통하여 위험을 중화 내지 전가시킬 수 있으나, 비비례보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무역과 관련된 학술지인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JIBS)에는 무역리스크관리에 관한 논문으로 Bilkey & Tesar(1978)의 연구가 있는 데, 이들은 수출단계가 진전될수록 또는 수출규모가 클수록 무역리스크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수출보험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국내외 많은 연구가 있으나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대출관련 선행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 연구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종목 중 단기수출대출자금지원제도와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제도가 각각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1985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도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수출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출의 변화의 정도와 단기수출대출자금지원제도와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제도가 수출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탄력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수요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의 종목중 단기수출대출자금지원제도와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증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분석해 봄으로서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종목들의 활용방안을 알아보고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분석모형의 설정

수출업체가 직면하게 되는 수출시 필요한 수출자금에 대해 단기수출대출자금지원제도와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이 대출제도들이 각각 수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출수요함수식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회귀식은 다원 1차 방정식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등을 감안하여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一國의 수출품에 대한 수요는 교역상대국의 소득과 상대가격지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한 수요는 교역상대국의 소득, 우리나라의 수출물가지수와 교역상대국의 물가지수의 비율로서 나타낸 상대가격지수, 단기수출대출자금지원액과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을 변수로 취하여 각 변수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다음과

27) Louis Eeckhoudt and Henri Louberge, "Export Credit Insurance : Comment".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5,pp742 ~ 50.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ln KEXV = \alpha_0 + \alpha_1 \ln WI + \alpha_2 \ln EXRP + \alpha_3 \ln KEIBST + \varepsilon \text{ ----- (A)}$$

(예상 : $\alpha_1 > 0, \alpha_2 < 0, \alpha_3 > 0$)

$$\ln KEXV = \alpha_0 + \alpha_1 \ln WI + \alpha_2 \ln EXRP + \alpha_3 \ln KEIBMLT + \varepsilon \text{ ----- (B)}$$

(예상 : $\alpha_1 > 0, \alpha_2 < 0, \alpha_3 > 0$)

여기에서 KEXV : 우리나라 총수출량(총수출액을 수출물가지수로 나눈 값)

WI : 세계소득(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독일 등 5개국의 GDP를

우리 나라 수출점유비에 의해 가중평균한 것으로 대체함)

EXRP : 수출상대가격(수출물가지수/세계상대물가지수)

(세계상대물가지수는 상기 5개국의 소비자자물가지수를

우리 나라 수출점유비에 따라 가중평균한 것임)

KEIBST : 우리 나라의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

KEIBMLT : 우리 나라의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

각 변수는 자연대수를 취함.

ε : 오차항

위의 모형에서 각 변수는 자연대수를 취함으로써 회귀계수 $\alpha_1 - \alpha_3$ 는 우리 나라의 수출상품 수요와 관련된 변수의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낸다. 먼저 회귀계수 α_1 은 세계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출품의 수요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교역상대국의 소득 변화에 따라 우리 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요도 변화하게 되므로 우리 나라의 수출재가 열등재가 아닌 이상 교역상대국의 소득증가(감소)는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감소)시킨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탄력성은 정(+)의 부호를 시현할 것이다.

α_2 의 회귀계수는 우리 나라의 수출물가지수와 세계물가지수의 상대물가지수 변화에 따른 수출량의 변화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수출물가 상승시 수출품에 대한 세계수요는 감소하고, 세계 상대국들의 물가상승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출상대가격에 대한 계수는 부(-)의 상관관계를 기대한다.

또한 α_3 는 수출업체가 직면하는 필요한 수출자금의 지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단기수출대출자금지원액과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이 각각 증가하면 수출에 대한 수요도 각각 증가하여 우리 나라 수출에 각각 유리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반면에 단기수출대출자금지원액과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이 각각 감소하면 수출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고 수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우리 나라 수출에 불리

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나라 수출과 단기수출대출자금지원액과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간에는 정(+)의 부호를 기대한다.

(2) 분석자료의 설명 및 분석방법

가) 분석자료의 설명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한국수출입은행의 종목인 단기수출대출자금지원제도와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제도에 대한 활성화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출수요함수에 이용된 종속변수로서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수출량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세계소득과 수출상대가격, 단기수출대출자금지원액과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 을 설정하였다. 먼저 세계소득 변수는 우리나라 수출액 비중 상위 5개국을 설정하여, 각국의 GDP에 우리나라와 수출액에 따른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 값을 세계 전체소득의 대응변수로 이용하였다.

수출상대가격으로는 우리나라 수출물가지수를 세계물가지수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 세계물가지수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큰 상위 5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 값을 대응변수로 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가중치는 최근 19년간 19개의 연도별자료에서 우리나라 총수출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위 5개국을 선정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지원종목관련변수로는 단기수출대출자금지원액과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나) 분석방법

본 연구 모형의 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분석대상 기간은 1985 - 2003년에 이르는 연도별 시계열자료(time-series)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분석은 1985년 - 2003년동안 단기수출대출자금지원제도와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제도가 수출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각 변수들에 대하여 자연대수를 취한 후 일반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 OLS)을 이용하여 분석해 봄으로서 독립변수가 어느 시점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패키지는 E-Views3.1 software를 이용하였다.

다) 실증분석의 결과

1985년- 2003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수출대출자금지원제도와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제도가 수출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최소자승법(OLS)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표 3-6〉 분석결과(1985년-2003년)

시기	종속변수	상수항	세계소득	수출상대 가격	단기수출대출 자금지원액	중장기수출자 금대출지원액	R ²	D.W.
A(t)	수출량	-6.877 (-2.504)	1.310*** (3.874)	-0.209 (-0.599)	0.093* (2.299)	.	0.914	1.122
B(t)	수출량	-9.203 (-2.980)	1.643*** (4.501)	-0.086* (-0.186)	.	0.007 (0.123)	0.885	0.816

주)1) ()의 값은 t 통계량.

2) ***는 1% 수준에서 유의성,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성을 뜻함

단기수출대출자금지원제도와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한 수출수요함수식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표 3-6>과 같다.

먼저 분석결과에서 세계소득의 증가는 우리나라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하게 되므로 수출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하에 분석되었는데, 분석 결과 세계소득 증가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의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탄력성의 값인 α_1 은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시 1.310로 추정되어 예상한 부호(+의 값을 나타내고 있고,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시 소득탄력성의 값인 α_1 도 1.643로 추정되어 예상한 부호(+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t통계량이 각각3.874와 4.501로 나타내어 유의수준에서 각 수준에 모두 유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상품물가수준의 변화에 따른 수출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수출상대가격탄력성인 α_2 의 계수는 분석결과에서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시 -0.209,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시 -0.086로 각각추정되어 예상과 같은 결과의 부호(-)를 나타내었고 t통계량이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시 각 수준에 유의적이지 못함을 보여주지만,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시 -0.186로 10%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과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의 탄력성계수인 α_3 의 추정계수가 0.093이고, 중장기수출자금지원액의 추정계수는 0.007으로 추정되어 예상과 같은 결과의 부호(+를 나타내었고, t통계량이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은 2.2995.509로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이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으나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인 경우 0.123으로 각 수준에서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85년-2003까지 분석기간 동안에 t의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이 t기의 수출에는 유효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은 수출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R²(coefficient of multiple determination : 다중결정계수)의 값은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시 0.914 그리고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시 0.885로 나타냄으로서 설명변수와 피설명변수간의 회귀모형이 설명력

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에서 오차항에 일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하는 더빈-왓슨(D-W) 통계량은 각각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시 1.122이므로 미결정영역에 해당되며,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시 0.816의 값을 보이므로 설명변수들의 1차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 결과를 보면,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 세계소득 및 수출상대가격은 모두 예상한 부호를 나타냈으나 예상반응에서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이 통계적 유의수준은 10%, 세계소득은 1%에서 각각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또한,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 세계소득 및 수출상대가격은 모두 예상한 부호를 나타냈으나 예상반응에서 수출상대가격이 통계적 유의수준은 10%, 세계소득은 1%에서 각각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제도는 우리나라 수출증대에 긍정적이며, 유효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제도는 우리나라 수출증대에 긍정적이지만 유효한 효과는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IV. 결 론

WTO체제에서 용인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를 수출지원전략으로 삼아 더욱 발전시켜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확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WTO보조금/상계조차협정 및 OECD가이드 라인 하에서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중목 중 대출종목을 2년미만의 단기와 2년이상의 중장기로 나누어 단기수출자금대출제도와 중장기수출자금대출제도의 양 측면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전자는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으로 단기적인 수출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중장기수출자금대출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수출지원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의 중목 중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제도와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제도에서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과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 분석해 봄으로써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중목의 활용방안을 알아보고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은 1985년부터 2003년까지의 분기별자료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수출수요함수에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과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을 독립변수로 추가하고 각 변수에 대한 자연대수를 취한 후 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 세계소득 및 수출상대가격은 모두 예상한 부호를 나타냈으나 예상반응에서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이 통계적 유의수준은 10%, 세계소득은 1%에서 각각 유의

미하게 추정되었다.

또한,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액, 세계소득 및 수출상대가격은 모두 예상한 부호를 나타냈으나 예상 반응에서 수출상대가격이 통계적 유의수준은 10%, 세계소득은 1%에서 각각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단기수출자금대출지원제도는 우리나라 수출증대에 긍정적이며, 유효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제도는 우리나라 수출증대에 긍정적이지만 유효한 효과는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수출 및 수출지원경쟁력증대를 위한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의 개선방향은 중장기수출자금대출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편중되고 단순한 운영에서 탈피하고, 선진 ECA들의 상업화민영화세계화 추세에 대비하여 대내적으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따른 지속적인 신규종목의 개발을 통해 미래수요에 대처하는 고객맞춤형상품개발과 e-business화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품서비스의 on-line화, 고객관리(CRM) 및 B2B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고,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된 IT infrastructure를 이용하여 해외수출입은행들과의 Network구축을 통한 신용정보구축시스템 및 시장조사시스템 그리고 결제시스템 등에 표준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뿐만아니라 해외 고객유치에도 노력하는 등의 세계적 공적수출기관의 영업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경영인프라 구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병서, 『인과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무역경영사, 1999.
- 공신영 외,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산업연구, 1993.
- 구중순·박광서, “한일기업의 수출위험 관리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학회지, 제19권 1호, 1994.
- 김광석, 『수입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조정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88.
- 곽상경, 『계량경제학』, 다산출판사, 1995.
- 김기수, 『WTO정부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종연구소, 1996.
- 김희국,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수출보험』, 한국수출보험공사, 1998.
- 남중현, 『GATT체제하에서의 보조금 문제와 한국의 산업 및 무역정책』, 한국 개발연구원, 1988
- 남중현·장의태, 『우루과이라운드 의 규율분야협상과 산업·무역정책의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출범과 신교역 질서 - 분야별 내용과 시사점-』, 1994
- _____ , 「GATT/WTO체제50주년 기념정책세미나, 수출지원방안」 , pp15, 1998.

- 문태복, 「WTO체제하의 수출보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박광수, 『한국의 수출입합수에 관한 실증분석』,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1996.
- 박대위, 『무역학연습』, 법문사, 1990.
- 박상호, “수출보험 가입동기에 관한 실증연구”, 『수출보험』, 한국수출보험공사, , 1995.
- 박진근, “수출제도약과 대외협력증진을 위한 수출보험의 역할”, 『수출보험』, 한국수출보험공사, , 1995.
- 배광선, 『U.R이후의 무역·통상정책방향과 제도 개편』, 산업연구원, 1995.
- 서석태, “한국수출수요와 공급의 구조방정식 추정”, 『한국개발연구』 제2권 제3호, 1980.
- 손상호, 『UR보조금, 금융자유화와 산업금융·세계의 개편방안』, 산업연구원, 1992.
- 손상호·윤재형,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해설서』, 산업연구원, 1994.
- 안충영, “21세기를 향한 수출보험의 역할”, 한국수출보험공사, 1993.
- 유일호, 『UR타결에 따른 산업별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5.
- 유창권, 「한국기업의 수출보험가입 결정요인과 활용율 제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경룡, 김용호, “한국기업의 수출신용 리스크관리 성과와 수출성과 분석,” 리스크관리연구 제4집, 1994. 한국리스크관리학회, pp.1 ~ 29.
- 이기형·김진수·임주형, 『WTO체제 출범에 따른 보조금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4.
- 이시환, 『무역보험론』, 대왕사, 1999.
- 이용근, 「한국수출기업의 운송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이은재, 「우리 나라 정부의 R&D 보조금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수출어음보험 및 중장기수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제13권 제4호 (통권 25호), 한국생산성학회, 2000.2.28.
- , “단기수출보험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수출보험학회지』, 한국수출보험학회, 통권 제3호, 2002.1., pp87 ~ pp.102.
- 이인주·이은재, “수출간접지원제도인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수출보험학회지』, 한국수출보험학회, 통권 제1호, 2000.10.
- 장동한, “무역대금 결제수단의 변화와 수출보험”, 『수출보험』, 한국수출보험공사, 1997.
- 정홍주, “우리나라 수출보험 손해율에 관하여”, 『한국경제』, 성균관대학교 산업 연구소, 제19권 1호, 1992.
- 지용희, 이장호, 『신무역개론』, 경문사, 1991, p.314.

- 한국금융연구원, 『우리나라 공적수출기관 기능 재정립과 장기발전방향』, 2000.12.
- _____ ,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과 발전방향』, 2003.9.
- 한국수출입은행, 『세계속의 수출입은행』, 2004. 6.
- _____ , 『수출입해외투자 기업의 파트너 뱅크』, 1994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월호
- 하현수, 「한국의 수출보험제도 운용과 활용을 제고 방안」,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황진원, “우리나라 수출입합수 추정과 분석”, 『경제 브리프스』, 한국산업은행, 1990.
- Brander, James and Barbara Spencer, "Export subsidies and international market share rivalr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8. 1985.
- Calum M. Carmichafi, "The control of export credit subsidies and its welfare consequences", Carleton University, Ottawa, Canada. January.1986.
- David Mayers and Clifford W. Smith,Jr., "On the Corporate Demand for Insurance : Evidence from the Reinsurance Market", The Journal of Business, Vol 63. No 1, January. 1990.
- Dorfman. Mark S. Introduction to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4th ed., Practice - Halo International Inc., 1991.
- F.H. Rolf, Seringhaus and Philip J. Rosson, "Government export promotion : A global perspectiv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0.
- Funatsu. Hideki, Export Credit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3.1986.
- GATT,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MTN/TNC 20, December. 1991.
- George E. Rejda. Principle of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4th ed., Harper - Collins Publishers Inc.,1992.
- Golsong. Herbert, International investment insurance against political risk, 1982.
- H Edwards, Export - Credit : The effective and Profitable management of export credit and finance (London : Butler&Tonner Ltd, 1983.)
- Hideki Funatsu, "Export credit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3, 1986.
- Howard K. Gruenspecht, "Export subsidies for differentiated products", Carnegie Mellon University, Pittsburgh, USA. December.1987.
- Huszaph,S.M. and Greene,M.A., "FCLA : Help of Hindrance to exporter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42, 1982.
- _____ , "How exporters view credit risk and FCIA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52, 1985.
- Louis Eeckhoudt, Henri Louberge, "Export credit insurance : Comment",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55. 1986.
- West, Gerald T., "U.S. Government investment insurance programs : New developments, Insuring American

Business against political risks abroad, Conference on political risk investment insurance, New York. 1982.
IMF, IFS, 각월호
[http : //www.koreaexim.go.kr](http://www.koreaexim.go.kr)